

실용적이고 다양한 소비자교육 강화·확대로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선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하면서 5년 후에는 전체 인구의 5.8%에 해당하는 3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글_차재익 대리(소비자정보국 소비자교육사업단)



이민자 소비자교육의 확대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서울·경기지역 이민자 139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했고, 2017년에는 전국단위로 확대해 10개 권역에서 894명(45회)에게 소비자교육을 진행했다.

그동안 실생활 중심의 소비자교육에 대한 긍정적 반응에 따라 교육수요는 증가했으나 강사 수요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주중 저녁과 주말 강의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올해는 법무부와 협업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를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을 소비자교육 전문 강사로 위촉하기로 하였다.

* 법무부는 국내 정착 이민자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 등 기본소양을 교육하고 있다.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교과목 편성

그 일환으로 지난 5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소비자교육이 진행되었다. 최대한 많은 강사들에게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 당초 30명이었던 교육인원을 40명으로 늘리고 법무부의 추천을 받아 교육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과정을 수료한 강사들은

소비자교육 전문 강사로 1년간 위촉되고, 전국 295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소비자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연수는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보호」, 「소비자문제와 소비자교육의 필요성」,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방법」, 「소비자안전의 이해」 등의 과목으로 편성됐다. 특히, 2016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교육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이민자들이 궁금해 하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방법, 전자상거래, 안전 분야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영어, 중국어 등 8개 언어로 번역한 워크북 제공

강의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문화 사회를 위한 쉽고 재미있는 소비자교육」이라는 교육생용 워크북도 제작했다. 이 워크북은 영어, 태국, 몽골, 중국, 베트남, 러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8개 언어로 번역해 제작했고 이민자 교육 시 배포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교육 전문 강사 양성 및 이민자 소비자교육 확대를 통해 소비자교육 강화 및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민자 소비자교육 전문 강사 양성연수를 받으며 고수(高手)의 밥상

클_한기연(시인)

지난 5월 한국소비자원에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민자 소비자교육 전문 강사 양성연수’를 받게 되었다. 3:1의 경쟁률을 뚫고 각 지역에서 선발되어 온 선생님들과 40명이 함께 교육을 받았다. 특히 제주도에 오신 선생님을 보면서, 섬에서 육지로의 먼 길을 마다않고 참여하신 그 열정에 큰 감명을 받았다.

사람에 따라 입맛도 다르고 대상과 나이에 맞는 영양이 요구되듯이 소비자교육도 맞춤형 식단처럼 짜임새 있게 진행됐다. 이민자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안전, 소비자 관련법에 대한 강의가 분야별 전문가에 의해 진행됐다. 교육 이수 후에는 1년 동안 이민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 강사로 위촉을 받게 되는 것이다. 주어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교육생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쉬는 시간에도 수업이 이어졌다. 법 교육이 대개 그렇듯이 소비자 관련법은 문장 자체도 어렵고, 이해도 쉽지 않았다.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것은 소비자 정책을 ‘보고 사고 알고 써라’로 쉽게 풀이해서 강의해 주신 내용이다. 다른 사람을 지도하기 이전에,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된 시간이었다. 짧은 교육일정이었지만, 속이 든든해지고 내면이 살찌는 기분 좋은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도에 음성군 맵동면으로 이주

했다. 물리적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역마다 지원이 있고 인터넷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소비자를 위한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연구를 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 생활과 가까이 있는데도 한국소비자원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바로 똑똑한 소비자가말로 이 사회의 경제를 이끄는 주역이라는 것이다.

10여 년 전 청룡영화제에서 ‘스태프들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라는 배우 황정민의 수상소감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소비자원은 균형 있는 밥상을 차려내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놓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일은 소비자의 몫이다. 고수(高手)가 차려낸 든든한 밥상 앞에서 나는 이제 겨우 수저를 들었다. 지금부터 나는 맛 하나하나를 정성껏 음미하면서 천천히 소화한 후, 이주민 앞에 근사하고 맛있는 밥상을 차려낼 것이다.

